

## 진실을 찾기 위한 노력은 멈추지 않는다

### 〈그것이 알고 싶다〉 1000회 금자탑 쌓다



1992년 3월 31일 '이형호 유괴사건-살해범의 목소리' 편으로 첫 방송을 시작한 〈그것이 알고 싶다〉가 2015년 9월 5일, 방송 1000회의 대업을 달성한다. 많은 시사교양프로그램이 생겼다가 사라진 것과 대조적으로, 〈그것이 알고 싶다〉는 우리 사회의 그늘을 심층 취재를 통해 새롭게 조명하며 시청자들에게 절대적인 신뢰와 지지를 쌓아왔다. 인권유린, 가정폭력, 성적 소수자, 이주 노동자, 미제사건, 미스터리한 사건, 종교집단, 정치권, 검찰과 경찰, 군대, 재벌과 기업... 〈그것이 알고 싶다〉의 취재가 미치지 않는 영역은 없었고, 그렇게 23년의 세월을 거쳐 1991년 12월 9일부터 TV방송을 시작한 신생 민영방송사에서 만든 시사다큐프로그램이 탐사보도프로그램의 대명사가 되었다.

〈그것이 알고 싶다〉는 심층취재를 바탕으로 한 치밀한 분석, 수사물이나 추리물을 보는 듯한 전개와 실감나는 재연으로 타 시사보도프로그램과의 차별점을 확실히 한다. 또 초대 문성근부터 현재 김상중에 이르기까지 역대 진행자들은 설득력 있고 카리스마 있는 진행으로 시청자들을 몰입시킨다. 이들의 독특한 말투와 행동은 많은 연예인들의 단골 패러디가 되었고, 진실을 찾고 정의를 부르짖는 그들의 이미지를 빌리려는 정치권의 러브콜이 이어졌다.

강산이 두 번 바뀌는 세월 동안 시청자들은 〈그것이 알고 싶다〉를 〈그것이〉라고 줄여 부르는 세대와 〈그알〉이라고 줄여 부르는 세대로 나뉘었다. 그러나 그들은 한결같이 〈그것이〉를 사랑하며 〈그것이〉의 공정성에 의문을 품지 않는다.

〈그것이〉가 SBS의 이미지를 묵직하게 잡아주는 대표 교양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기까지는 〈그것이〉를 거쳐 간 77명의 PD와 51명 작가들의 피와 땀이 있었다. PD들은 자신과 가족에 대한 협박보다 방송금지 가치분 신청을 두려워했고, 작가들은 이번 편을 끝으로 만 일을 알아보겠다고 다짐하면서도 월요일이 되면 또 편집기 앞에서 날밤을 지냈다. 일단 취재에 나서면 카메라맨은 물론 운전기사까지 정의감에 불타서 한 팀으로 똘똘 뭉쳐 뛰어다니는 덕분에 〈그것이〉 방송 1000회의 금자탑을 쌓을 수 있었다.

〈그것이〉로 인해 SBS에 PD협회가 생겼고, 〈그것이〉의 끈질긴 취재 덕분에 재판결과가 뒤집히고 관련법이 개정된 사례는 셀 수도 없다.

박두선 CP는 "세상에는 반드시 알려져야 하는 '진실'이 있다. '진실'을 알면 세상이 바뀐다. 우리 사회가 알고 싶은 것, 반드시 알아야 하는 '진실'을 밝혀내기 위해 〈그것이 알고 싶다〉 제작진은 2000회, 3000회까지 달려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그것이 알고 싶다〉는 1000회 특집으로 '대한민국에 정의를 묻다' 3부작을 9월 5일부터 3주간 방송한다. 매회 제작진이 프로그램을 통해 말하고 싶었던 한 마디, 시청자들과 함께 공감하고, 분노하고, 그 힘으로 세상을 한 걸음씩 나아가게 하고 싶었던 '정의'에 대해, 1부 교도소 내 차별, 2부 재벌 3, 4세대의 특권 의식, 3부 공직자·정치인의 커백션을 통해 다시 한 번 생각해 보는 계기를 마련한다.

### 〈그것이 알고 싶다〉 1000회의 기록

#### 최장수 진행자는 김상중

- 1대 문성근 1992.3.31~1993.12.26 (1년 9개월)
- 2대 박원홍 1994.1.9~1995.9.16 (1년 8개월)
- 3대 오세훈 1996.10.14~1997.9.29 (11개월)
- 4대 문성근 1997.10.26~2002.5.11 (총 6년 4개월)
- 5대 정진영 2002.5.18~2006.1.21 (3년 8개월)
- 6대 박상원 2006.2.4~2008.2.23 (2년)
- 7대 김상중 2008.3.1~현재 (7년 6개월)

#### 최다 연출 순위

- 1위 장경수 차장 : '병무비리 스캔들' 등 45편
- 2위 강범석 차장 : '사라진 약혼자' 등 34편
- 3위 이광훈 차장 : '천안함 침몰 미스터리' 등 31편
- 4위 김재원 : '사모님의 이상한 외출' 등 28편
- 5위 최태환 부장 : '오창 맨홀 번사 사건' 등 27편

#### 최다 수상 기록

- '홀로코스트, 그리고 27년-형제복지원의 진실' (배정훈/2014.3.22) 언론인권상, 노근리평화상 등 6개
- '국군포로 장무환-50일간의 북한 탈출기' (박종성/1998.10.11) 휴스턴 페스티벌, 한국방송대상 특별상 등 5개

#### 김상중 진행이후 연도별 최고 시청률 (닐슨코리아/수도권)

- 2008.4.12 '인간의 조건 2 자식만을 믿은 죄 - 해외 고령장' (17.2%/최성)
- 2009.2.21 "죽이고 싶어서 죽었다" - 강호순 연쇄살인 미스터리 (15.3%/최상호)
- 2010.1.16 대해부 - H정신수련원 사건의 진실 (14.2%/한재신)
- 2011.1.15 UFO는 오고 있는가? (16.8%/김태현)
- 2012.6.16 사냥꾼과 두 여인 (15.4%/김재원)
- 2013.1.12 지워진 이름 - 그녀는 누구인가 (13.9%/김재원)
- 2014.3.22 홀로코스트, 그리고 27년 - 형제복지원의 진실

(11.7%/배정훈)

2015.7.25 세 모자 성폭행 사건의 진실 - 누가 그들을 폭로자로 만드나 (11.1%/안윤태) \*2015.9.2 현재

#### 시리즈로 방송된 아이템

필리핀 연쇄납치 살인 사건 4회 / 유부도 정신질환자 수용시설 인권유린 3회 /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 1회 불방 3회 방송 / 약촌 오거리 살인사건 3회 / JMS교 3회 / 재미교포 이한탁 씨 사건 3회 / 재아인사 장준하 사망 미스터리 2부작 +1회 후속방송 / 김훈 중위 사망 미스터리 2회 / 춘천파출소장 딸 살인사건 2회 / 수지 김 사건 2회 / 삼례 슈퍼 살인사건 2회 / 대구여대생 사망사건 2회 등

#### 불방 사례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 (1993년) / 아가동산 (2001년) / 결핵촌 - 이정재 회장 (2003년) 등

## 아침부터 저녁까지 SBS 드라마 천하 〈어머님은 내 며느리〉, 〈돌아온 황금복〉



월화드라마 〈미세스 캅〉, 수목드라마 〈용팔이〉가 타사 경쟁작들을 여유롭게 따돌리고 1위를 지키고 있는 가운데, 아침드라마 〈어머님은 내 며느리〉와 일일드라마 〈돌아온 황금복〉도 소리 없이 선전 중이다.

3사 아침드라마가 각기 다른 시간대에 방송되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어머님은 내 며느리〉(극본 이근영, 연출 고희식)는 6월 22일 첫 방송 이후 열세를 보이다가 7월부터 상승세를 타며 8월 들어서는 평균 시청률 12.21%로, MBC 11.66%, KBS 11.22%를 앞서고 있다(이하 닐슨코리아/전국/8.1~8.27). 특히 8월 25일에는 3사 중 처음으로 14%를 돌파하며 인기몰이 중이다.

시어머니가 며느리가 되고, 며느리가 시어머니가 된다는 관계역전 드라마 〈어머님은

내 며느리〉는 각기 남편을 잃은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새 사람을 만나 알콩달콩한 사랑을 엮어가는 모습으로 재미를 주고 있는 가운데, 출생의 비밀이 벗겨지고 이로 인한 관계 역전이 곧 진행될 예정이어서 시청률 상승을 가속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6월 8일 첫 방송을 시작한 일일드라마 〈돌아온 황금복〉(극본 마주희, 연출 윤류해) 역시 같은 시간대 방송되는 MBC 〈위대한 조강지처〉에 뒤졌으나, 7월부터 치열하게 1위를 주고받으며 8월 평균 시청률은 9.5%를 기록, 9.37%의 MBC를 근소하게 앞서고 있다. 전미선, 전노민, 심혜진, 이혜숙, 선우재덕 등 중년들의 사랑과 우정, 배신과 복수, 진실을 찾으려는 노력과 감추려는 음모가 본격적으로 전개되면서 이야기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돼, 9월 중에 시청률 두 자릿수 진입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 〈그것이 알고 싶다〉 1000회 기념 인터뷰 - 진행자 김상중

## “그런데 말입니다. 2000회도 욕심냅니다”

#### 1000회를 맞는 소감을 말해 달라.

한 프로그램이 23년간 이어져 1000회를 맞는다는 건 대단한 일이라 생각한다. 감개무량한 일이다. 또 그 1000회의 순간에 내가 서있다는 것 또한 개인적으로 굉장히 큰 영광이다. 1000회를 넘어 2000회까지 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바람도 있다.

#### 최장수 진행자이다. 어떤 힘으로 여기까지 왔는지?

여기까지 온 것은 나의 힘보다는 현장에 나가서 불철주야 땀을 흘리며 고생하는 제작진 덕분이다. 방송을 위해 제작진이 계속 밀고나가는 힘과 계속 진실의 문을 두드려야 한다는 책임감, 의무감, 이런 것들이 내가 진행을 해오게 한 원동력이 아니었나 생각이 든다. 제작진의 고생과 노력에 비하면 나는 조족지혈이다.

#### 〈그것이 알고 싶다〉를 하면서 얻은 게 있다면? 반대로 잃은 것은?

나의 본 모습보다 더 지적인 이미지로 만들어졌고, 내가 갖고 있는 무게보다 더 많은 무게감을 주었다. 여러 가지로 이미지가 많이 업그레이드되었다. 크나큰 혜택이다. ‘잃었다’라고 이야기하긴 조금 그렇지만 본업이 연기자이다 보니 배역 선택의 폭이 줄어들었다는 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가 준 많은 것들이 있기에 그 정도는 충분히 감수할 수 있다.

#### 기억에 남는 아이템은?

2008년 3월 1일 659회부터 시작해 1000회까지 340여 개의 아이템을 했다. 처음 〈그것이〉에 입문했던 ‘송례문 화재 미스터리’부터 ‘세월호사건’, 최근에 ‘세모자 사건’까지 모두 다 소중한다. 열 손가락 깨물어 아프지 않은 손가락 없듯이 우리 제작진들이 피땀 쏟아가며 만든 것이기에 모든 것이 소중한다.



#### “그런데 말입니다”라는 독특한 어투가 유행이다.

진행을 맡은 지 1년쯤 후부터 “그런데 말입니다”를 쓰기 시작한 것 같다. ‘그런데’라고 얘기하고 댄 얘기로 넘어가기엔 예의가 없는 것 같아서 ‘말입니다’를 붙여봤다. 그게 오늘날까지 이어져 트레이드 마크가 됐다. 다른 연예인들이 패러디하는 걸 많이 봤는데 역시 오리지널만 못한 것 같다.(웃음)

#### 현장에 직접 나가기도 하던데.

8년 가까이 진행하다 보니 ‘늘 그 모습이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으실 것이다. 프로그램도 그렇지만 진행자 역시 조금씩 진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웬만하면 스튜디오 안에서 진행하는 것보다 현장에 나가서 진행하고 싶다.

#### 〈그것이〉를 사랑하는 시청자와 사우들에게 한 마디 해 달라.

〈그것이 알고 싶다〉가 1000회라는 업적을 이룬 데에는 제작진의 노고가 크다. 시청자들 역시 1000회를 만들어오는 데 큰 부분을 담당했다고 생각한다. 요즘은 〈그것이〉 마니아층도 생겼고, 방송 후엔 갑론을박을 벌이는 공간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미스터리한 살인사건, 미제살인 사건, 이런 것들

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는데, 미제 사건도 중요하지만 그것 말고도 우리가 해야 할 이야기는 많이 있다.

예를 들면, 그동안 한일 관계에 대한 아이টে이 많이 했다. 독도부터 일본 우익에 대한 이야기, 일본으로 넘어간 문화재 이야기 등 여러 가지를 했지만 이런 내용은 미제 살인 사건보다 호응도가 낮다. 〈그것이〉가 좀 더 다양한 사회문제를 다루려면 시청자분들께서 이런 내용에도 관심을 가져주셔야 한다. 그래야 그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더 많이 알려주려고 노력할 수 있다.

〈그것이〉가 한 소재에 치우치지 않고 다양한 소재에 관심을 기울일 수 있도록 시청자분들이 도와주셨으면 한다.

## ‘제42회 한국방송대상’ <편치> 등 8개 부문 수상



방송협회가 주최하는 ‘제42회 한국방송대상’ 시상식이 ‘방송의 날’인 9월 3일(목) 상암동 MBC공개홀에서 열렸다. SBS는 <편치>가 중단편드라마TV 부문, <TV동물농장>이 생활정보TV 부문, 러브FM <유영미의 마음은 언제나 청춘>이 사회공익라디오 부문에서 작품상을 수상했으며, 개인상으로는 <풍문으로 들었소>의 정성주 작가가 작가상, 편집기술팀 나종진 차장이 편집기술상, 보도국 국제부 편상욱 차장이 앵커상, SBS A&T CG팀의 이준석 차장대우가 영상그래픽상, 텔런트 조재현이 <편치>로 연기자상을 받았다.

##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행> ‘좋은 세상 나눔이상’



희망TV SBS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행>이 9월 1일(화)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제4회 2015 좋은 세상 나눔이상’ 시상식에서 공로상을 수상했다. 현대오일뱅크 1% 나눔재단이 주최하고 보건복지부가 후원하는 ‘좋은 세상 나눔이상’은 이웃과 사회를 위하여 건강한 사회복지 서비스와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펼치고 있는 개인, 또는 단체에게 주는 상이다.

희망TV SBS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행>은 2003년부터 꾸준히 장애와 희귀병으로 고통 받는 의료사각지대 환아를 지원하는 한편, 시청자로 하여금 소외 계층에 관심을 갖고 나눔 활동에 참여하도록 유도하여 사회전반의 나눔 문화 확산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계층에 관심을 갖고 나눔 활동에 참여하도록 유도하여 사회전반의 나눔 문화 확산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 이동 편성 <불타는 청춘> 화요일 밤 한 방에 제압



<불타는 청춘>(연출 박상혁)이 화요일 밤 11시 10분으로 자리를 옮긴 첫 날인 8월 25일 7.6%의 시청률을 기록해, 4%에 그친 KBS2 <우리 동네 예체능>을 가볍게 제압하고 동시간대 1위를 차지했다.

이는 <불타는 청춘>의 자체 최고 시청률이자, 금요일 밤에 방송되던 때의 평균시청률 5.4%와 비교할 때 2.2%p나 오른 수치이어서, 이번 이동 편성은 성공적이라고 평가 받고 있다.

중년의 싱글스타들이 여행을 통해 추억을 공유하고 우정을 쌓아가는 <불타는 청춘>은 스타들의 담백한 모습과 자연스러운 구성이 중장년 시청자들을 TV 앞으로 불러 모으며 인기를 쌓아가고 있다.

## “먹고 싶쥬?” 시청자 침샘 분출 <백종원의 3대 천왕>



8월 28일(금) 첫 방송된 <백종원의 3대 천왕>이 7%의 시청률로 순조롭게 출발했다. 백종원은 첫 회 주제음식인 돼지불고기 명인을 찾아 전국을 누비며 최고의 맛집을 찾아냈고, 선정된 3인의 명인들은 스튜디오에 출연해 88인의 일반인 맛 판정단 앞에서 요리 대결을 펼쳤다.

3MC 백종원, 이휘재, 김준현은 각기 해설위원, 캐스터, 먹선수 역할을 맡아, 이들의 대결을 박진감 넘치게 증계하는 방식으로 여타 쿡방들과 확실히 차별화했다. 백종원은 해박한 요리상식으로 3대 천왕들의 조리비법을 낱알이 해부했으며, 먹선수 김준현은 식상한 멘트 대신 온몸으로 맛을 표현해냈다. 첫방 아이টে미로 서민적인 돼지불고기를 택한 것도 신의 한수였다. 넘쳐나는 쿡방에 대해 부정적인 시선을 보내던 사람들조차 채널을 고정하고 군침을 삼키게 한 결과, 시청률과 평가면에서 모두 합격점을 받았다. 깊은 밤 야식의 유혹을 불러올 <백종원의 3대 천왕>은 매주 금요일 밤 11시 25분에 방송된다.

## <잘 먹고 잘사는 법, 식사하셨어요?> 새 MC에 김수로



배우 김수로가 <잘 먹고 잘사는 법, 식사하셨어요?>의 새로운 진행자로 낙점됐다. 1년 4개월간 <식사하셨어요?>를 이끌어왔던 이영자의 자리를 넘겨받은 김수로는 자연요리연구가 임지호와 전국을 돌며 사연이 있는 이웃들에게 자연의 밥상을 선물하게 된다.

각종 공연과 방송으로 바쁜 와중에도 선뜻 <식사하셨어요?>의 진행을 수락한 김수로는 “평소 호감을 갖고 지켜봐왔다. 앞으로 <식사하셨어요?>가 더 많은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열심히 임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그의 폭넓은 인맥으로 다양한 스타들이 <식사하셨어요?>에 출연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 가운데, 김수로의 첫 게스트로 중국에서 활동 중인 한류 스타 추자현이 특별 귀국하여 최근 강원도 속초와 고성 등지에서 촬영을 마쳤다. 김수로가 진행하는 <잘 먹고 잘사는 법, 식사하셨어요?>는 9월 13일(일)부터 방송된다.

## 본격적인 스포테인먼트 첫 시동 <질주본능 더 레이스>



국내 최초 카 레이싱 프로그램 <질주본능 더 레이스>가 8월 29일(토) 첫 방송됐다. <질주본능 더 레이스>는 10명의 연예인들이 카 레이싱 훈련을 받은 뒤, 카 레이싱 대회에 출전할 최후의 4명을 선발하는 과정을 담는다. 방송 전부터 그동안 TV에서 쉽게 볼 수 없었던 카 레이싱의 매력을 유감없이 보여줄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첫 방송에서는 정보석, 김연우, 추성훈, 정찬우, 전혜빈, 한승연, 박형식, 정진운, 니엘, 정다래 등 10인의 평소 운전습관을 관찰카메라로 담아 웃음을 주었다. 산만한 운전, 조심스러운 운전, 급한 운전, 스피드를 즐기는 운전 등 10인 10색의 운전모습을 보며 시청자들은 자신의 운전 스타일을 돌아보았고, 과연 누가 카 레이서로 거듭날지 호기심을 가졌다.

7년째 카 레이싱 팀을 운영하고 있는 류시원은 이 프로그램 진행자로 적격이었다. 10인 레이서들의 감독으로서 멤버들의 운전 습관을 체크하고, 직접 시키 시범을 보이며 기술을 전수하는 모습은 프로다웠다. 자동차에 대해 남다른 열정을 갖고 있는 스타들이 기초부터 차근차근 배워 레이서로 탄생하는 과정을 실감나게 보여줄 <질주본능 더 레이스>는 매주 토요일 저녁 6시 25분에 방송된다.

우리 프로그램은요~

## ‘뽀뽀’ 해져야, 인생이 ‘FUN FUN’ 해진다!!

## 〈김영철의 뽀뽀 투데이〉



파워FM(수도권 107.7MHz)  
월~일 오전 06:00~07:00

개그맨 김영철이 영어를 한다고 했을 때, 처음엔 모두가 개그 소재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김영철은 10년 동안 꾸준히 새벽마다 영어 학원을 다니며 공부했고, 지난 2011년부터는 아예 영어 프로그램 DJ로 파워FM 매일 아침 6시, 얼리버드 청취자들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국내파 김영철이 해낸 영어비법을 고스란히 담은 〈김영철의 뽀뽀 투데이〉는, 딱딱한 영어 전문 프로그램에서 벗어나 영어를 소재로 한, 교육과 재미가 어우러진 버라이어티 방송입니다.

하루 한 문장만 기억해도 성공이라는 생각으로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한 문장, 한 표현만을 기억할 수 있게 재미있는 상황과 반복적인 연습으로 청취자들의 아침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평소 영어가 부담스럽기만 했던 직장인, 새벽근무자, 주부, 학생들에게 영어를 좀 더 쉽고 재미있게 알려주고, 김영철이 직접 공부하면서 깨우친 문장 암기법이나 영어공부의 필요성, 또 공부 중에 느낀 슬럼프 극복법을 함께 나누며, 편안한 이웃집 오빠처럼 아침마다 청취자에게 다가가고 있습니다.

〈뽀뽀 투데이〉의 매일 코너이자 대표 코너라고 하면 〈팩스 앤 더 PC〉와 〈뽀뽀한 싱얼롱〉을 들 수 있습니다. 코믹 콩트 모노드라마 〈팩스 앤 더 PC〉는 패션잡지사 ‘엠티지컬’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상황을 통해 영어 한마디를 배워보는 코너로, 최화정, 이영자, 김희애, 강호동, 성시경, 샘김, 엠버 등 다양한 스타들의 성대모사를 들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미스 런던’이라는 애칭을 가진 원어민 작가의 출연으로 하루 한마디 영어 표현을 정확하고 신뢰성 있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또 개그맨 윤성호와 함께하는 〈뽀뽀한 싱얼롱〉은 올드 팝부터 최신 팝까지 그동안 모르고 따라 불렀던 팝송가사의 한 부분을 직접 듣고, 가사의 내용을 배워보고, 자신감 있게 따라 불러보는 시간입니다.

영어 전문 프로그램은 아니지만 하루에 하나씩 배워가는 깨알 같은 영어표현이 있고, 김영철의 버라이어티한 성대모사와 웃음과 활기참이 있는 〈뽀뽀 투데이〉!

무거운 출근 준비, 〈김영철의 뽀뽀 투데이〉와 함께 가볍게 시작해보세요.

- 〈김영철의 뽀뽀 투데이〉 연출 변정원 차장대우(라디오센터 라디오2CP소속)

## 공연 · 전시

## 태양의 서커스 〈퀴담〉

## 한국에서 전 세계 투어 마지막 공연



일시: 9월 10일(목)~11월 1일(일)  
장소: 잠실종합운동장 빅탑

태양의 서커스 〈퀴담〉이 한국에서 전 세계 투어 마지막 공연을 갖는다. 태양의 서커스측은 8월 6일, 서울에서 열린 〈퀴담〉 기자 간담회에서 “가장 큰 성공을 거뒀던 한국에서 마지막 공연을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했다. 태양의 서커스 〈퀴담〉은 2007년 한국 초연 당시 9주 연속 예매사이트 공연랭킹 1위, 2007년 연간 판매순위 1위, 17만 관객 동원으로 대한민국 공연계에 신기록을 세운 바 있다.

〈퀴담〉은 ‘익명의 행인’을 뜻하는 라틴어로, 무관심한 부모를 둔 어린 소녀 ‘조’가 상상 속 세계 〈퀴담〉으로 빠져들며 다양한 캐릭터들과 만나게 되는 이야기이다. 익명성의 사회와 소외된 세상에 따뜻한 희망과 화합의 메시지를 전한다는 다소 무거운 주제를 프랑코 드라고네 감독은 놀라운 연출력을 발휘하여 몽환적으로 표현해냈다. 〈퀴담〉은 몬트리올에서의 첫 공연을 시작으로 20년 동안 5대륙을 투어하며 6,200회의 공연, 1,380만 명 이상의 관객을 만나는 대 성공을 거뒀다. 또한 〈퀴담〉은 우리나라에 소개된 태양의 서커스 4편 -〈퀴담〉, 〈알레그리아〉, 〈바레카이〉, 〈마이클 잭슨 임포털 월드투어〉- 중에서 가장 성공한 공연이기도 하다.

8년 만에 한국에 돌아온 〈퀴담〉은 전 세계 마지막 투어 공연이라는 프리미엄이 붙어 지난 25일 3차 티켓 오픈과 동시에 예매 랭킹 1위를 달리고 있다. 전 세계인이 사랑하는 〈퀴담〉을 볼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말라.

8년 만에 한국에 돌아온 〈퀴담〉은 전 세계 마지막 투어 공연이라는 프리미엄이 붙어 지난 25일 3차 티켓 오픈과 동시에 예매 랭킹 1위를 달리고 있다. 전 세계인이 사랑하는 〈퀴담〉을 볼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말라.

## 〈올해의 작가상〉 관람 후기

## “한국현대미술의 미래를 본다”



일시: 8월 4일(화)~11월 1일(일)

장소: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소격동 소재)

연말연시엔 꼭 올해의 사자성어가 등장합니다. 매년 12월 31일 한 해가 넘어가는 걸 기다리면서 보는 연예 대상, 연기 대상도 모두 ‘올해의’ 원가를 뽑는 것들이지요. ‘올해의’ 원가를 접하면 일 년 내내 관심이 없던 분야라도 왠지 이것만큼은 알아야 될 것 같기도 하고,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 현대미술도 저에겐 그런 분야예요. 일 년 내내 가까이하기 어렵지만, 그래도

‘올해의’ 작가상은 매년 보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20년 만에 서울에서 열려서 가벼운 마음으로 〈2015 올해의 작가상〉에 다녀왔습니다. 〈올해의 작가상〉은 총 4명의 작가들의 작품을 전시하고 이 중 한 명이 최종 심사를 거쳐 올해의 작가로 선정됩니다.

오인환 작가는 가장 우리의 일상과 연결되는 작품을 보여준다는 느낌이었습니다. 작가의 전시 공간으로 들어가 보면 분홍색으로 칠해져 있는 공간이 있는데, CCTV에 들어오지 않는 사각지대라고 합니다. “포기하지 마라. 어딘가 반드시 보이지 않는 곳이 있다”라는 문구가 인상적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이나 주차장에서도 항상 CCTV에 찍히고 있는 우리지만 생각보다 넓은 분홍색의 범위에 놀랄 수도 있습니다. 직접 확인해보시죠.^^

나현 작가의 전시는 작품을 본다기보다는 작품에 들어가는, 혹은 올라가는 느낌이 더 많이 듭니다. 국립현대미술관 안에 ‘난지도’ 혹은 ‘바벨탑’이 와있습니다. 심지어 실제 난지도처럼 직접 계단으로 올라가볼 수도 있지요. 바벨탑의 비유는 한 번쯤 들어보셨지요? 작가는 서울의 난지도, 베를린의 악마의 산을 이런 바벨탑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나현 작가는 역사적 사건, 기록, 현재와의 연결과 관련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작간데요, 그의 작품과 하나가 되는 느낌이 색다릅니다.

김기라 작가는 영상 작품 7점을 내놨습니다. 짧은 영화 같은 작품도 있고, 래퍼들과 작업한 뮤직비디오도 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공동선’이 큰 틀인데 추상적인 개념을 구체적으로 담아내서 영화관에 온 것처럼 앉아서 계속 영상을 봤습니다. 개막식 땀 힙합 공연 퍼포먼스도 있었다고 하네요.

하태범 작가의 작품은 뉴스와 미디어에 대해 다룹니다. 엄청난 크기의 하얀 벽에 하얀 글씨로 셀 수도 없는 ‘사건, 사고’들이 나열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긴 양 벽을 통과해야 계속 전시를 볼 수 있다 보니 굉장히 압도당하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매일 그런 내용을 접하거나, 뉴스로 전달하면서도 느끼지 못했던 이런 뉴스들 ‘속’에 갇혔을 때의 기분이 어떤지 느껴보시면 좋겠습니다.

글로벌 봐도 느끼셨겠지만 네 명의 작가가 정말 다른 스타일의 작품들을 내놨습니다. 원래 서바이벌 프로그램을 볼 때도 최후의 1인이 누가 될지, 나름대로 그 근거를 대면서 응원하는 건 재미있잖아요? 이 중에서 누가 ‘올해의 작가’로 마지막에 꼽힐지 생각해보는 것도 재미있게 전시를 볼 수 있는 방법이 될 것 같아요.

- 아나운서팀 김선재

## SBS 문화재단

## 김성준 기자, 〈올해의 작가상〉 특별 도슨트로 활약

8월 28일(금) 보도국 김성준 기자가 국립현대미술관 〈올해의 작가상〉 특별 도슨트로 활약했다. 특별 도슨트는 특별 초청인사가 미술관 1일 도슨트로 봉사하는 이벤트이다.



35명의 관람객 앞에 선 김성준 기자는 약 한 시간 동안 작품과 작가에 대한 지식을 자신의 경험과 연관 지어 알기 쉽게 설명하였다. 사건 사고의 현장을 전달하는 대중 매체의 태도를 재해석한 하태범 작가의 작품 앞에서는 언론과 미디어의 취재윤리 변화에 대한 설명을 곁들였다.

백남준 선생에 대한 오마주 작품(김기라 작가) 소개 때는 백남준 선생의 장례식 취재 당시 에피소드를 전하기도 했다.

한편, 국립현대미술관 홈페이지와 SBS나도펀딩(www.nadofunding.com) 페이스북을 통해 미리 김성준 기자의 특별 도슨트 참여자를 모집한 결과, 모두 하루 만에 마감되어 김 기자의 인기를 증명했다.